

좋아하는 것 오래하며 '살아남는 것'의 가치를 찾다

광주극장·인디뮤지션 '예술적 만남' 영화 '버터내고 존재하기' 관람 후 가수·출연진 초청 미니 시네콘서트

21세기에도 영화가 시작할 때면 '장'을 치는 극장. 직접 그린 손간판을 입구에 내걸고 관객들을 기다리는 극장. 많은 것들이 쉽게 변해가는 요즘, '버터내고 존재한다'는 간단한 말은 듣기 좋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다. 변화무쌍한 세태에 본래의 가치를 지켜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랜 시간 광주 시민 곁에 자리하며 100년사를 바라보고 있는 광주극장과 위기에 처해 있는 인디뮤지션을 초점화한 영화 '버터내고 존재하기'가 주목을 받는 이유다.

지난 7일 저녁 광주극장에서 열린 '광주극장 커밍홈'은 1일 개봉한 '버터내고 존재하기'를 관람한 뒤 가수·배우인 출연진이 미니 콘서트를 선보이는 자리였다. GV(게스트 초청)와 콘서트에 앞서 먼저 영화 상영이 있었다. 스크린과 객석 거리가 널찍한 광주극장에는 멀티플렉스·상업영화관과 다른 매력이 있다.

영화 '버터내고 존재하기'는 지역 최고(最古) 극장인 '광주극장'의 매표소, 영사실, 상영관, 사무실,



광주극장 매표소 위에 걸려있는 '버터내고 존재하기' 손간판.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손간판을 그리고 있는 박태규 회백 작품이다.



영화 상영 후 광주극장 2층 조봇한 로비에서 공연이 열렸다. 가수이자 배우 김일두가 노래하는 모습.

재단, 북도 등을 배경으로 촬영했다. 총 8팀의 인디 뮤지션들이 스크린 속에서 음악을 들려주는 '시네콘서트'를 표방하는 작품인데, 세계 최대 음악페스티벌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서 초청공연을 진행했던 최고은이 기획했다.

"처음에는 소규모 온라인 상영을 위해 제작했어요. 그런데 광주극장과 인디 뮤지션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됐고 판을 키워 완결성 있는 영상물로 만들었죠. 이후 2022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작품상, 서울독립영화제 페스티벌 초이스 부문에 초청받으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어요. 올해도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작 등으로 오르면서 주목받았어요"

영화는 광주극장 2층 북도에서 뮤지션 '김일두'가 중저음의 포크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1-2층 사이 층계참에서 김사월은 '확률'을 불렀는데, 애잔한 목소리가 고즈넉한 공간을 가득 채웠다. '불나방소제지름', '최고은', '주소영', '아마도이자라밴드'와 '곽푸른하늘', '정우',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등도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영화는 여기까지, 영사기가 멈추자 관객들은 일제히 광주극장 2층에 모였다. 조봇한 로비에는 반짝이는 알전구와 마이크 하나가 전부였지만 영화와 음악 애호가들로 가득 차 생각이 돌았다. 방금까지 2D 스크린 속에서 노래하던 뮤지션들이 GV를 진행할 때는 눈앞에 있어서 3D 영화를 보는 듯했다.

영화에서도 오프닝 공연을 맡았던 부산 중구 출신 김일두는 콘서트 막을 열어 "이제 광주에서 참단 09번 버스도 흔하 타 만큼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터내고 존재한다"는 말의 집뜻은, 좋

아하는 것을 오래 하면서 그저 '살아남는 것'이라고 덧붙혔다. 중후한 목소리로 '뜨거운 불'을 불렀는데 스크린에서 듣는 것과 다른 매력이 있었다. 배우이자 가수로서 필모그래피와 디스코그래피를 동시에 써 내려가는 영화 출연진들의 예술적 시도가 신선했다.

한편 인디뮤지션 베틀이 출연할 때는 우레와 같은 합성이 쏟아졌다. 그녀는 '대중의 기호에 맞는 음악과 나의 음악적 소신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고민되고 흔들리기도 한다'라며 '힘든 시기가 많았지만 꿋꿋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곁에 있는 동료들 덕분이었다'고 '버터내고 존재함'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대미는 영화기획과 사회를 맡은 뮤지션 김고은이 장식했다. 서정적인 가사에 포크기타의 선율이 더해져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세 뮤지션의 레퍼토리는 삼인 삼색. 저마다의 방식으로 힘겨운 예술계에서 '버터내고 존재해 왔다'는 점은 세 예술가를 달리 보게 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인디뮤지션과 광주극장은 한 폭의 정경화로 어우러지며 '버터낸다'와 '존재한다'의 의미를 환기시켰다.

주목받기 힘든 인디씬 뮤지션들은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수식어를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가는 것이 숙명.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단관극장인 광주극장도 언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며칠 전 60년간 원형을 유지해 오던 원주아카데미극장이 기습 철거된 일과 맞물려, 이날의 행사는 뜻 깊게 다가왔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아버지합창단 공연 장면.

<광주아버지합창단 제공>

'동서화합을 위하여 함께 부르는 합창'

광주아버지합창단, 11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진주아버지합창단 특별공연

동서를 가로지르는 아버지들의 힘찬 울림. 광주아버지합창단(단장 김남호)은 제32회 정기연주회 '동서화합을 위하여 함께 부르는 합창'을 오는 11일 오후 7시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연다.

동서 지역 간에 음악을 매개로 화합한다는 취지에 따라, 광주와 진주 등의 합창단이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엘리자 플라워, 로웰 메이슨 등이 작곡한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함은'이 막을 연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가 가라앉을 때, 승선해 있던 윌리스 하틀리 등 6명의 악단이 피난객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선상에서 연주한 바이올린곡이다. 악단은 전원 숨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찬송가와 클래식 버전으로 현대에도 꾸준히 연주되고 있다.

이어 '그대 그리고 나', '천추별곡' 등 성가, 가곡, 가요 11곡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동서 화합을 목표로 진주아버지합창단(단장 전형수)에서 '형제여 영원하라' 등 3곡, 광주 어머니들이 모인 '맘마싱어즈'에서 'I Got rhythm'을 들려준다.

서울대와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김황경은 '동심초' 등을 특별 공연으로 선사한다.

지휘를 맡은 윤원중은 조선대 음악교육과와 동 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이탈리아 페스카라 다논지오 국립음악원과 페스카라 아카데미 오페라과를 졸업했다. 현재 맘마싱어즈, 광주교사합창단 등에서 지휘.

한편 광주아버지합창단은 1998년 창단한 이래, 지역 의료시설 및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영·호남 아버지들의 화합과 소통으로 진주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진주성 박물관에서 공연을 펼쳐 동서간 화합을 예술로 도모하고 있다.

협연하는 진주아버지합창단은 1998년 제1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으며, 진주시민합창페스티벌에서 대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아버지합창단 채우성 사무국장은 "하모니를 중요시하는 합창을 통해 광주와 진주의 아버지들이 협력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며 "평소 접하기 힘든 남성 합창의 매력을 느껴보고, 맘마싱어즈합창단의 아름다운 여성 합창도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역대 대통령들 작품 경매로 만나요"

에이옥션, 10일부터 온라인 경매 제 14~19대 역대 대통령 작품 출품

노무현 '사람사는 세상',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역대 대통령들의 작품이 경매에 출품돼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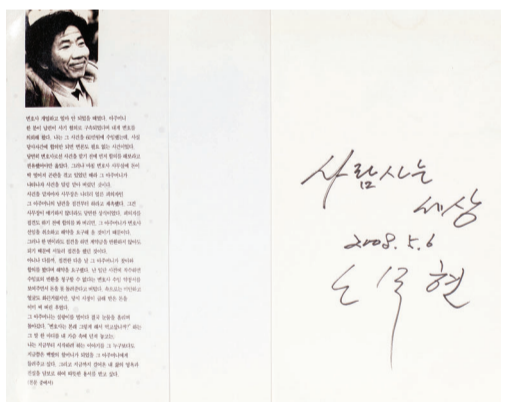
(주)에이옥션은 9일 제14대부터 19대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작품이 (주)에이옥션 미술품 온라인 경매에 출품된다고 밝혔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작품이 경매에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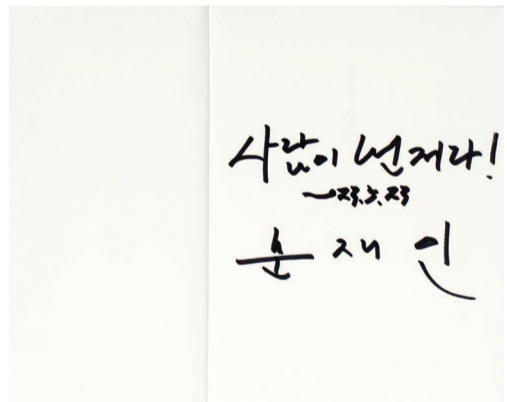
이번 경매는 10일부터 (주)에이옥션 홈페이지를 통해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경매 마감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다.

출품작은 종이에 먹으로 쓴 휘호를 비롯해 도자기에 쓴 글씨, 서명한 자서전 등 다양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 등이 나왔다. 작품 경매 시작가는 모두 10만원.

에이옥션에 따르면 광주전남 출신 화가들인 소



노무현 '사람사는 세상'.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치 허련, 의재 허백련, 오승운, 오승우의 작품도 나와 있다. 또한 영화감독인 봉준호와 박찬욱의 서명된 책도 나와 있어 이목을 끈다.

한편 (주)에이옥션에서는 지난 2017년 노무현 대통령이 A4 용지에 썼던 '사람 사는 세상'이 100만원에 시작해 16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에이옥션 서보훈 대표는 "역대 대통령들의 작품이 경매에 등장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화가들의 고미술을 비롯해 근현대 서화화, 서예 등 다양한 작품을 외에 소품이나 드로잉도 출품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생 여정 '산티아고 순례길의 모든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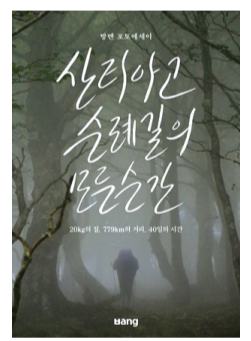
산책여행자 방맨 출간 기념 북토크... 12일 독립서점 러브앤프리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버티면서 나아가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걸고 난 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 어떠한 작은 이 순간을 단단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길 위의 인연들이 저의 앞에서, 저의 뒤에서 그저 곁에 나가느라 미처 목격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느끼지만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토크를 매개로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산책여행자 방맨의 '산티아고 순례길의 모든 순간'을 출간하는 북토크가 열린다. 오는 12일 오후 3시 독립서점 러브앤프리 2층.

방맨 작가는 20kg 짐을 지고 779km에 달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40일만에 걸었다. 그가 걸으면서 느꼈던 단상과 느낌, 사유 등이 책이 오롯이 담겼다.



그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을 건네는 제 마음의 반영(反映, Reflection)이 비춰진 우리들의 소행성이 이룬 작은 우주에서 우리만의 까미노 이야기를 펼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제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방맨 작가는 지금까지 '출근 대신, 여행', '발리에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불행에서 여행으로, 남인도로 인도하다' 등을 펴냈다.

선착순 10명이며, 참가비는 책 구매로 대신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